



국립나주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실 등을 새롭게 꾸미고 재개관했다.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된 고분문화실.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나주 신촌리 금동관'



'나주 신촌리 9호분 율관 독널'

# 고대 타임캡슐 열리다... 영산강 문화·역사 엿보다

103년 출토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국보 295호로 지정된 유물이다. 금동관 외에 금동신발을 비롯해 용봉황무늬 고리자루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푸른 녹이 스민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고대의 찬란한 시간을 보여주는 생생한 유산들이다. 삼국시대 영산강 일대에서 사용된 무덤 양식인 '나주 신촌리 9호분 율관 독널'도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흙을 구워 만든 관에는 시신과 부장품 등이 담겼다. 고대 시간의 타임캡슐인 금동관과 독널 등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최근 상설전시실을 새롭게 꾸미고 재개관했다.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기획전시실, 신기술융합

국립나주박물관 10주년 맞아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재개관 '금동관' 등 4천여점 유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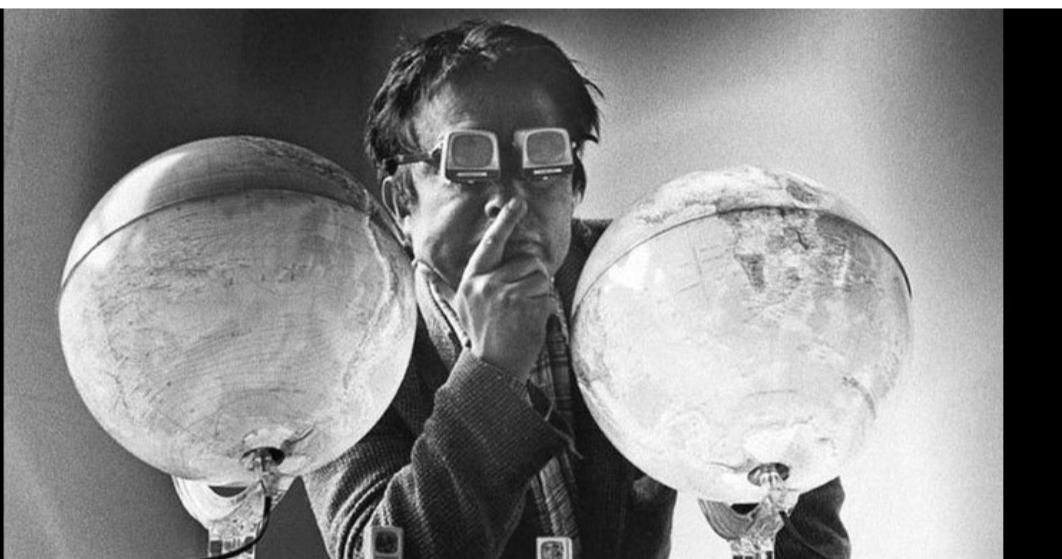
콘텐츠허관(실감콘텐츠), 어린이박물관 등 박물관 전체가 새단장을 한 것. 김상태 관장은 "지난 2013년 건립 이후 그동안의 연구와 조사 결과물을 새로운 전시 양식에 따라 담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지진 피해 등을 대비해 면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가장 관람객의 발길을 끄는 곳은 영산강의 고대

역사가 담긴 고분문화실과 역사문화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을 고분, 역사로 나눠 전남 서부에서 출토된 약 4천여 점의 유물을 비치했다. 먼저 고분문화실은 무덤 양식인 독널들을 선보인다. 지역의 무덤 양식인 독널을 모티브로 미디어 아트 영상이 펼쳐진다. '영원한 안식'을 주제로 한 영상은 30m의 벽면을 활용해 전달된다. 주제가 말해줄 듯 독널에 묻히기까지의 인간의 생애와 장례 절차 등이 다채로운 영상으로 보여진다. 전시실에는 토기와 구슬, 갑옷 등 주제별로 전시해 당대의 생활 풍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당대 사람들의 생활 문화뿐 아니라 신앙관, 내세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비치해 이해를 돕는다. 나주 북암리 7호분 도랑에서 출토된 '나주 북암

리 유적 7호분 소뼈'는 보통의 동물 뼈와 다르다. 팔다리가 묶인 데다 머리가 없어 정례 과정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문화실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전남 서부지역의 역사를 개괄한다.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시대별 도구 등과 생활 도구 등이 소개된다. 보물로 지정된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고려시대 제작된 유물이다. 구조 자체가 정교하며 조각도 뛰어나다. 석등 가운데 연대 확인이 가능한 드문 경우로 꼽힌다. 재개관과 맞물려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은 물론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전시관 출입문 안쪽을 자동문으로 교체했다.

아카이브 공간도 신설해 박물관의 축적된 자료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표 고분들의 위치는 물론 관련 정보 등을 곁들여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독널 3D 스캔 사업 결과물도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독널 조각이나 주요 전시품의 복제품을 마련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학예연구실 오연숙 담당자는 "이번 상설전시실 등 리모델링으로 관람객들은 영산강 유역의 고분 문화와 역사문화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향후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설 확충해 영산강과 연계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속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광주극장, 22일 시네토크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스틸컷

대부분의 개인이 자신만의 채널, 플랫폼 등을 갖는 현대사회를 예견한 20세기 디지털 크리에이터 백남준.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수혜, 미국 타임지 선정 '아시아의 영웅(2006)' 등으로 꼽힌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을 초점화한 영화를 감상한 뒤 시네토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22일 오후 7시 10분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아트-시네토크,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바로 그것. 영화는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던 백남준의 인생사를 비롯해 예술세계 전반을 담았다. 그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한국을 떠난 뒤, 일본·독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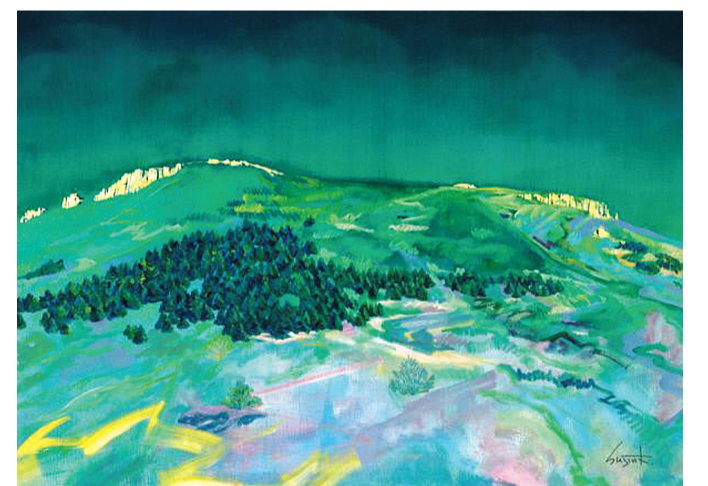
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일대기를 모두 들 수 있다. 그의 실제 육성과 지인들의 목소리 등이 어우러져 있다. 백남준의 성공기를 열어젖히는 평을 받는 1974년 작 'TV부다'와 관련된 일화도 내용에 포함된다. 내레이션은 영화 '미나리'로 알려진 스티븐 연이 맡았으며, 토크 게스트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영호(센터장), 고영재(학예연구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매주 목·토요일에는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상영 시작 전 김나을 도슨트가 해설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료 진행.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이외에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제1-3전시실에서는 G.MAP 미디어아트 특별전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도 열리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백남준 회고전'으로, 총 160여 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백남준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아낸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백남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며 "실제 육성부터 지인들의 목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만큼, 그에게 관심이 있었거나 몰랐던 관객이라도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진행.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 하정웅미술관 '포트폴리오 발표 I'

김수진·박기태·박아론·위주리 작가, 20일 작품 소개

김수진, 박기태, 박아론, 위주리 작가. 이들 작가들은 하정웅미술관 광주청년작가전 '하이퍼이미지 시대의 미술'의 참여작가로 선정돼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명 '포트폴리오 발표 I', 20일 오후 3시 하정웅미술관. 이번 발표 I은 전시 연계 행사로 기획됐으며,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은 물론 작품 세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김수진 작가는 자연은 상호작용한다는 관념을 토대로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은 포용, 공생의 관계이며 오감을 넘은 상호 작용하는 세상이라고 본다. 철제 조각의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을 바라보는 박기태 작가는 실존주의에 천착한다. 작가는 인간은 실존을 경험하지만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박아론 작가는 인간은 지배자가 아닌 생태를 구성하는 일원임을 강조한다. 폐유리로 만든 피라미드를 통해 작가는 현실도 본질도 아닌 허위임을 드러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수진 작 '푸른 태양의 시간'

이성과 감성, 심신을 따로 개별화하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위주리 작가는 양자역학을 매개로 작품을 풀어낸다. 마음판에 새겨진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김준기 관장은 "청년작가들의 번뜩이는 사유와 자신만의 작품 세계는 오늘의 광주 미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며 "현대미술의 흐름과 맞물려 작품활동을 펼쳐가는 지역 청년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올 크리스마스엔 '원숭이 루돌프'가 찾아옵니다

ACC재단 어린이무용 '루돌프' 특별공연...23~24일 어린이문화원

올 크리스마스에는 겁이 많은 원숭이 '루돌프'가 세상과 친구들을 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동물은 사슴이다. 그것도 코가 빨간 사슴이 썰매를 끄는 모습이 보편화돼 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작품 속에서 빨간 코 사슴이 아닌 영덩이가 빨간 원숭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를 모티브로 한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어린이 무용이 관객을 찾아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는 23일과 24일 오후 2시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어린이무용 '루돌프'가 그것. 이번 작품은 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청소년 무

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의 첫 작품으로 고블린 파티 이경구 안무가가 어린이 관객을 위해 만든 공연이다. 언급한대로 이번 작품은 소심한 루돌프의 성장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됐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며 변화되는 루돌프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과 다리, 몸으로 다양한 동물을 표현하는 무용수의 움직임,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의 결합은 상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료는 1만 5000원이며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 참조. 하성국 어린이문화원팀장은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루돌프 사슴이 아닌 루돌프 원숭이를 모티브로 진행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며 "관람객들은 공연을 매개로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어린이 무용 '루돌프'. <ACC재단 제공>

고, 원숭이 루돌프의 몸과 마음을 따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윤상아 피아노 독주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전남대 음대를 수석 입학 후 독일로 떠나 이후 광주로 유턴해 박사학위를 뽐낸 피아니스트 윤상아(사진). 윤상아가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전남대 음악학과,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했으며 귀국 후 전남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태리 국제콩쿨 'Euterpe'에서 입상했으며 독일 스크리아빈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 등에 출연했다. 윤상아는 "독일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하며, 곡에 깃든 섬세하면서도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때 떠오른 희열감, 카타르시스를 누군가와 공감하고 싶고 후학도 양성하고픈 마음에 광주로 유턴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공연은 쇼팽의 시적인 발라드 전곡을 연주하며 스키타라티, 하이든 등의 곡을 들려준다는 계획

이다. 스카를라티 '소나타 B단조 K.27', '소나타 D단조 K.213' 등이 울려 퍼진다. 하이든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보켄 16:49'도 들을 수 있다. '발라드 1번 G단조 Op.23', '발라드 2번 F장조. 38번'을 비롯해 '발라드 3번 A플랫 장조 Op.47' 등은 쇼팽의 곡이다. 윤상아는 "이번 공연은 시대 흐름에 따라 음악의 변천사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공연이다"며 "쇼팽의 발라드 전곡을 연이어 감상해, 극대화된 서사성이 광주 시민들의 귀를 매료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윤희 기자 rubi@kwangju.co.kr

